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7월 1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 **찬송가** - 16장(신, 31장), 348장(신, 213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 **성경봉독** - 시편 14편 1~7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 **말씀 묵상 (열납)**
 1.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개체로 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기쁘게 받으시는 것) 곧, **“하나님과 건강하게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2. 이러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먼저, 1~6절에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표현합니다(1절). 시간 곧,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서 현재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기억하고 있고 계속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식의 시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알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식”(2절),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4절)). **이로 보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 이어서, 7~11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세상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에 대한 증거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7절).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곧,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리”에 서고(8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함을 받으며”(9절),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에너지”(10절)를 얻게 되며, 더 나아가서, “잘못에서 돌이키는 방편”(11절)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숨은 허물”(12절)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13절)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4. 요약하면, “성경”이 자신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이르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되며, 그러한 걸음 속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성경으로 진단하고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열납”(14절)) 고백하는 것입니다.
- ❖ **은혜 묵상**
 1. 코로나19와 사회의 혼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를 조여온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의탁하기 보다, 세상의 정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창조주(주인)되심을 망각하여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삶의 짐을 스스로 지고가면서 힘들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는지 잠시 삶을 묵상하고 스스로 적으시거나 나누시는 시간을 가집시다.
 2.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에서 날마다 발견하면서**, 성경에 자신을 비추는 삶,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하게 교제하는 삶(열납되는 삶)에 서야함에 동의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